

공공건설시장 대응방안 미래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경쟁요소를 갖추어야

건설산업연구원 이복남 실장

IMF체제 이후 건설수주와 건설허가면적은 급감한 이후 더딘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에 일반건설업체수는 급증하고 있어 건설업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건설업계가 최근에 들어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외환위기로 인한 공사물량의 격감 때문이다. 2000년의 공사물량이 1997년의 70%에 불과하고, 업체수는 동기간 중에 41%나 증가한 것이 주원인으로 이러한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1] 건설업체 현황

(단위 : 개사)

연도	전체	일반	전문
1990	5,406	918	4,488
1995	17,968	2,958	15,010
1997	25,445	3,896	21,549
1998	25,959	4,207	21,752
1999	30,693	5,137	25,556

2003년에 가서야 1997년의 공사물량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신설 건설업체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산업계의 요구를 부분적으로나마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의 일부가 「21세기 건설산업진흥 촉진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신기덕 박사는 국내 건설산업의 1990년대 환경을 분석하고 정부 정책과 일반경제 환경 및 인터넷 정보유통기술의 변화가 2000년대 건설환경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구체적으로 하였다.

54개 공공기관의 1,500여개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공공건설예상 발주규모는 2000년에 29조 3천억원, 2001년에 32조7천400억원, 2002년에 29조7천700억원, 2003년에는 29조8천60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3년까지의 공공공사 발주물량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2] 건설업체 평균수주액

(단위 : 억원)

연도	전체	일반	전문
1990	263,765	918	287.3
1995	576,063	2,958	194.8
1997	749,240	3,896	192.3
1998	470,801	4,207	111.9
1999	511,364	5,137	99.7
2000	609,000	6,150	99.0

환경변화와 시장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업계가 취해야 하는 전략수립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발표될 예정이다. 즉 공공건설시장의 발주방식별 핵심경쟁력의 변화 요인과 방향, 기획 및 설계에서부터 시공 및 유지보수단계에 이르기까지 역할 선택에 대한 필요성과 건설사 품별 기업들이 선택하여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표3] 일반건설업체 부도 현황

(단위 : 개사)

연도	부도업체	서울	지방
1990	3	1	2
1995	135	40	96
1997	291	75	216
1998	522	124	398
1999	112	26	86

과거의 관행과 국내시장에서만 통하는 제도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급속히 진입하고 있으므로 국내 건설산업계는 기업 나름대로의 보유 역량 분석과 미래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경쟁요소를 갖추기 위한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준비해야만 국내 시장에서의 생존보장은 물론 해외건설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